■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707-732.
http://doi.org/10.17948/kcs.2023..98.707

영미권 박물관 온라인 사전 자료를 통해 본 한국 관련 역사 인식 및 번역*

박현주(朴賢珠)**

목 차

1. 들어가며
2. 영미권 박물관 온라인 사전 자료
3. 한국 관련 역사 인식 및 번역과 그 함의
4. 탈식민주의적 번역을 위한 제언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외 박물관의 온라인 사전 자료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번역 혹은 표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영미권 3개 박물관(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포틀랜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컬렉션과 관련한 온라인 용어 사전 및 연표 등에 수록된 기술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다양한 한국 관련 표제어 수록, 한국 제도 소개 등 한국 관련 자료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며 한글이 등장하거나 한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한 음역 용어를 채택하는 등 한국의 존재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사전의 기술 사항 중 우리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을 반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러한 시각 차가 역사 및 문화를 비롯해 한국의 전체적인 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부정적 함의가 있을 경우 그 개선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364).
**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연구소 연구교수.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본고는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번역 맥락 하에서 광의의 의미에서의 번역자가 그들의 책무인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영문 학술 자료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국외 박물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문 사전 자료로서 한국 컬렉션 포탈, 그리고 그 하부 구성 요소로서 한국 컬렉션 관련 근대 인물 사전을 우리의 주체적 시각에서 구축하는 안을 대략적이나마 제안해 보았다.

주제어: 국외 박물관, 사전 자료, 한국 컬렉션, 한국의 표상 및 번역, 한국 컬렉션 포탈, 영문 근대 인물 사전.

1. 들어가며

연표와 용어 DB를 비롯해 박물관에서 구축 및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 자료는 자동적으로 ‘권위’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다. 박물관이라는 기관이 지니는 후광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과 외국 박물관 온라인 사전 자료에서 표상되는 한국의 이미지 간에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그 함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고구려를 진취적 기상과 연결 짓는 데 반해,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헤일브룬 미술사 연표에서는 ‘호전적(warlike)’이라는 형용사로 고구려를 기술하고 있다.[1)]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영미권 박물관의 온라인 사전 자료에 수록된 한국 관련 표제항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기술 사항이 한국 및 한국 문화의 번역에 미치는 영향 혹은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부정적 함의가 있는 경우,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 유물과 관련한 실제 번역 자료를 통해 그 개선안,

1) “Goguryeo, a warlike tribal people”, https://www.metmuseum.org/toah/ht/04/eak.html (2022.7.24. 검색). 이와 관련하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실 ‘고구려의 철갑기병’ 설명 패널을 보면 국문이 “고구려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중국의 혼란기를 이용한 대외 정복 활동으로 넓은 영토를 개척하고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였다”라고 시작하는데 영문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빠져 있다(2022년 8월 8일 방문). 공간 제약으로 번역 시 국문 원문의 일부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제가 ‘기병’이므로 배경 정보에 해당하는 첫 문장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영문 번역문에서 이 부분이 생략된 것이 공교롭다.

혹은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회(ICOM) 정의에 따라 협의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미술관, 동식물원, 도서관 등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2] '번역' 개념 또한 문화번역과 언어를 매개로 하는 텍스트 차원의 번역을 아우르는 확장된 번역 개념[3]을 적용한다. 스터지에 따르면 박물관 번역의 경우 무엇을 선택해 어떻게 전시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도 번역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정의를 적용할 경우 통상적 의미의 '원문' 개념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즉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번역 맥락에서 번역은 고착된 의미를 다른 언어로 단순 변환하는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문화 권력이 작용하는 "복잡하며 유동적이고 혼종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이다.[4] 마지막으로 '한국 컬렉션(Korean collection)'은 국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와 현대 작품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한국실에는 오래된 유물뿐만 아니라 남북한 현대 작가의 작품까지 전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2. 영미권 박물관 온라인 사전 자료

자료 수집은 영국박물관(BM), 메트로폴리탄박물관(MET), 포틀랜드박물관(PAM)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세 곳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

2)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은 2022년 8월 '박물관'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채택했다(https://icom.museum/en/news/icom-approves-a-new-museum-definition/, 2022.12.18. 검색). 15년간 유지되던 기존 정의에서 '비영리'가 '비영리 추구'로 완화되고 다양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문구로 변경되었지만(정상혁 2022), 비영리 목적으로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하는 기관이라면 박물관으로 간주하는 기본틀은 유지하고 있다. 광의의 박물관 개념을 적용한 박물관 번역 관련 논의는 박현주, 「국내 박물관 번역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구 고찰 및 시론적(試論的) 논의」, 『통역과 번역』 23(1), 한국통역번역학회, 2021a, 57-86면 참조.

3) Kate Sturge, *Representing Others: Translation, Ethnography and Museum*,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7, Chapter 2.

4) 같은 책, 2면.

① 용어 DB, 연표 사전 등 온라인 사전 자료가 명확히 존재한다.
②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보고서(이하 'NRICH 보고서')가 존재하므로 필요할 경우, 기술 주체에 따라 내용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③ BM과 MET는 세계적 규모의 박물관으로 자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하므로 일종의 지식 전파자로 기능한다. 반면 PAM은 게티(Getty) 등 타 기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지식 전파자인 동시에 지식 소비자로서의 측면이 있으므로 BM과 MET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측면도 고찰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1) BM 용어 DB

BM은 개별 유물 페이지에서 중요한 용어의 경우 하이퍼링크로 용어 DB에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박물관 웹사이트에 용어 DB가 별도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소장품 페이지의 각 설명항[5]에 수록된 용어 클릭 시 해당 용어 설명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구조를 지닌다.

URL 주소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용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대다수의 용어가 일반 용어로 분류되어 '~collection/term' 밑에 수록되며, 인명/기관명은 'biography'를 줄여 '~/term/BIOG', 문헌은 'bibliography'를 줄여 '~/term/BIB'로 표시(아래 표에 밑줄로 표시)하고 있다.

〈표 1〉 BM 용어 DB

유형	표제항 구성	표제어 형식	URL 주소 형식	표제어 사례
일반 용어	표제어, 이칭, 관련어, 비고, 상위어, 하위어	dang-ui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term/x315084	changgi-board; ottchil; Punch'ong ware; sanggam
인명/기관명	표제어, 이칭, 기본 정보(개인/기관, 직업, 국적, 성별 등) 생몰년, 기타 관련 연도, 생애, 참고문헌	Kim Hongdo 김홍도 金弘道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term/BIOG11434	George Eumorfopoulos; Moroga Hideo 諸鹿央雄; Ogita Etsuzo (荻田悦造); Yamanaka & Co; Hahn Kwang-ho 한광호 韓光鎬; Kim Il-Sung 김일성 金日成

5) 설명항은 문화권/시대(cultures/periods), 유형(object type), 발견지/발굴지(findspot), 소재(materials), 기술(technique), 제재(subject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용어의 하위 분류로도 볼 수 있다.

문헌	표제어, 이칭, 저자/편집자, 세부사항(게재정보), 출판사항 등	Portal 2000 / Korea : Art and Archaeology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term/BIB5655	Ayers 1964 / The Seligman Collection of Oriental Art: Volume 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인명 표제어는 기증자 등 관련 인물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국한하지는 않으며, 외국 박물관의 경우 한국실이 남한으로 국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 인명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일 경우 인명 표제어는 기본적으로 영어+한글+한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글이 한자보다 선행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호나 다른 철자(로마자) 표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칭 정보로 제공한다. 특기할만한 점은 직업(활동 분야)과 국적 외에도 성별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언어 특성에 따라 성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영문 인물사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6] '생애(Biography)' 항목에는 중요무형문화재[7] 지정 같은 우리나라 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BM 용어 DB에 등재된 일반 용어 중 번역학적 관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용어로는 '바둑판'을 예로 들 수 있다. '바둑'은 일본식 용어인 'go'로 번역되는 경우가 흔한데 BM에서는 한국식 용어를 기준으로 한 'paduk-board'를 표제어로 하고 관련 용어에 일본식과 중국식 용어(go-board, weiqi-board)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일반 용어 중 일부 용어('bamboo'나 'chrysanthemum', 'lotus', 'plum' 등)는 도상적 중요성을 지니는 동양 맥락에 한정해 용어로 취급한다고 되어있다.

2) MET 헤일브룬 예술사 연표사전[8]

헤일브룬 예술사 연표사전은 크게 주요 소장품, 논고, 문화/국가별 연표로

6) 20세기 한국 미술 관련 용어(일반/인명/단체명)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영문, 중문, 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 사전』의 인명편을 보면 성별 정보가 없다(https://www.gokams.or.kr/visual-art/art-terms/index.asp, 2022.7.20. 검색).

7) 기존의 '중요무형문화재'라는 용어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19)에 준해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8) Heilbrunn Timeline of Art History, https://www.metmuseum.org/toah/(2022.5.20. 검색).

구성되어 있는데[9] 본고에서는 이 중 문화/국가별 연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표 첫 화면의 세계지도에서 동아시아(East Asia)를 클릭하면 한중일 삼국이 파란색으로 바뀌며 총 30건의 항목이 나타나는데 각국별로 10개씩 항목으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만 등장했던 보스턴박물관(MFA) 미술사 연표(1916) 등 20세기 초만 해도 그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한국의 위상이 상승[10]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시기에 따라 구분된 MET의 각 연표 항목(표제항에 해당)은 그 미시구조가 각 시기에 해당하는 시대/왕조(Timeline), 개요(Overview)와 연도별 주요 사건(Key Even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요 사건' 항목은 사건의 단순 열거에 그치지 않고 관련 설명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일례로 그 영토가 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던 고구려와 발해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일본 연표 중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조선 도공을 납치한 사실을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11]

MET 연표에 고구려(표제항 Korea, 1-500 A.D.)와 발해(표제항 Korea, 500-1000 A.D.)가 한국 왕조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점은, 동북공정 등의 결과물을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까지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중화문명전파공정[12]과 관련해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북경에서 열린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서는 전시장 벽에 걸린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빠져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 또한 중화문명전파공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한국사는 신라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13]하며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9) 2022년 9월 5일 현재, 소장품 8,030점, 논고 1,047편, 연표 291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10) 박현주,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변화에 따른 영미권 박물관에서 한국의 번역과 표상」, 『번역학연구』 22(4), 한국번역학회, 2021b, 101면.
11) https://www.metmuseum.org/toah/ht/06/eak.html, https://www.metmuseum.org/toah/ht/08/eaj.html(2022.7.25. 검색). 유럽에는 임진왜란이 소위 '도자기 전쟁(Ceramic War)'이라 알려져 있는 만큼 조선 도공 납치와 관련한 사실도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김현숙,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동북공정식 고구려사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71, 고구려발해학회, 2021, 10-11면.
13) 같은 글, 29면.

것이다. 통상 전시장 입구에 위치하는 연표는 관람객에게 준거점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전 성격으로 개최된 동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삭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MET 헤일브룬 연표의 세계적 위상과 활용도를 고려할 때 해당 연표에 한국 왕조로 고구려와 발해[14]가 명확히 언급되고 있음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3) PAM 용어 DB

PAM은 소장품 소개 페이지에 '관련 용어(Terms)'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며, 용어를 클릭하면 '용어 설명(Details)'과 '관련 소장품(Related Artworks)'으로 구성된 각 표제항 페이지로 이동한다. 소장품 소개 페이지의 '작가(Artist)'와 '제작지(Place Made)' 항목 또한 해당 인명과 지명을 클릭해 들어가면 '용어 설명(Details)'과 '관련 소장품(Related Artworks)'으로 구성된 표제항 페이지로 연결된다. 따라서 용어는 크게 일반 용어, 지명, 인명/기관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15] 각 유형별로 표제항의 미시구조가 아래와 같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표 2〉 PAM 용어 DB

종류	미시 항목 구성
일반 용어	유형(Term Type), 대표 용어/표제어(Preferred Term), 이칭(Variations), 상위어(Broader Term), 하위어(Narrower Terms), 정의(Details)
지명	이칭(Alternate Names 혹은 Names), 장소 속성(Place Type), 설명(Description), 설명 출처(Authority), 참고문헌(Source), 출신 인물(Born) 등
인명/기관명	인명: 이칭(Names), 성별(Gender) 기관명: 이칭(Names), 기관 유형(Occupation or Type)

14) 헤일브룬 연표에서는 발해를 대다수 'Barhae'로 표기하고 있으나 698년 설명 부분을 보면 'Barhae (Chinese: Bohai)'라고 중국식 발음도 병기하고 있다. 이는 발해를 중국식 표기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5) URL 주소의 뒷부분을 보면 '레코드 일련번호 + 레코드 유형'을 수록하고 있는데 용어 유형별로 끝이 각기 type=801, type=704, type=701로 끝난다. 예) http://www.portlandartmuseum.us/mwebcgi/mweb.exe?request=record;id=300014072;type=801

한국 컬렉션 관련 일반 용어 '유형(Term Type)'은 'Art & Architecture Thesaurus'와 'Iconclass'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게티예술건축시소러스(Getty Art & Architecture Thesaurus)에서 자료를 끌어온 용어임을 나타낸다. 도상 분류를 의미하는 'Iconclass'에는 현재 'dragon'과 'phoenix'만 등록되어 있다. 게티의 AAT를 검색해 보면 'dragons'와 'phoenixes'라는 용어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의를 읽어보면 동양의 '용'이나 '봉황/주작'과는 다른, 서양 관점의 '용'과 '불사조'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AM에서는 동양 맥락에서 별도의 도상적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간주하고 AAT에 링크시키지 않고 'Iconclass'로 따로 분류했을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대나무, 국화 등과 관련한 BM의 용어 처리 방식을 상기시킨다.

인명의 이칭 항목에는 다양한 로마자 표기 양식에 따른 이름 표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가 있는 경우 이들 정보까지 수록하고 있다. 인명/기관명은 부표제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명에는 국적과 생몰년, 기관명에는 국적 정보가 부표제어 형식으로 부가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두 박물관과 다르게 PAM은 게티예술건축시소러스와 게티지명시소러스(Getty Thesaurus of Geographic Names) 등 외부 기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 전파자인 동시에 지식 소비자로 기능한다. 그런데 타 기관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례로 조선 왕실 유물로 보이는 〈자수일월화조도〉(소장품 번호 2004.115)의 '관련 용어(Terms)' 항목에 수록된 용어 중 'Chosen'에 연결된 하이퍼링크를 따라가면 조선시대(1392~1910)가 아닌, 기원전 4세기 철기시대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16] 이는 게티 AAT 사전 내용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용어를 틀리게 매칭시킨 결과로 보인다. AAT에서는 고조선은 'Chosen (ancient)'으로, 근세 조선은 'Yi (Korean culture or period)'라는 표제어를 부여하고 있어, 기계적으로 형태가 동일한 'Chosen'의 설명을 가져와 보여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PAM은 박물관이라는 기관적 성격 때문에 지식 전파자로도 작용한다는

16) http://portlandartmuseum.us/mwebcgi/mweb.exe?request=record;id=300106675;type=801(2022.7.25. 검색).

사실을 고려할 때, 타 기관의 지식 소비, 즉 해당 지식을 활용해 자체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소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M과 PAM의 용어 DB는 소장품 설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즉, 기존 사전을 통째로 웹사이트에 올려 단독 메뉴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소장품 페이지를 보는 과정에서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관련 용어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유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접근 방식이다.

한국의 표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및 한국 문화의 가시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어를 수록함에 있어 한국 발음 그대로 음역한 사례, 그리고 로마자 표기와 함께 한글을 병기한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관련 자료의 양적,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컬렉션과 관련된 용어를 용어 DB에 표제어로 수록하고 해당 용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보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시각과는 다른 기술, 특히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도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한다.

3. 한국 관련 역사 인식 및 번역과 그 함의

1) '제국의 시선' 혹은 그 잔재 —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술하는 방식은 해당 기관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MET 연표 중 표제항 'Korea, 8000-2000 B.C.'을 보면 주요 사건 중 하나로 고조선의 기원과 관련해 단군조선설과 기자조선설[17]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

(〈표 3〉의 우측 헤일브룬 연표 내용 참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단군조선 관련 내용(①)이 선행하고는 있으나 '반신(demigod)', '전설(legendary)', '인간 여인이 된 곰과 천신의 결합(union of a sky deity and bear-woman)'이라는 표현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설 혹은 신화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반면, 뒤의 기자조선 부분(②)은 '~이라고 믿어진다(is believed to)'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이는 원래 MET에서 출간한 *Arts of Korea*(Best 1998)에 수록되었던 내용을 연표로 옮겨온 것으로,[18] 그 과정에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마자 표기 방식 및 일부 표현이 수정됐다(밑줄 표시). 특기할만한 사항은 *Arts of Korea*에는 없던 "legendary"라는 표현을 헤일브룬 연표에 새로 삽입하며 단군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전설'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군을 "무조건 신화로만 치부"[19]하는 중국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20]

〈표 3〉 MET 고조선 관련 수록 내용 비교

MET *Arts of Korea* (Best 앞의 글, 16면)	MET 헤일브룬 연표 (2022 현재 웹페이지)
Traditional Korean sources present two different accounts of the origins of civilization on the peninsula. One credits the achievement to an indigenous	Traditional Korean sources present two different accounts of the origins of civilization on the peninsula. ①One credits this achievement to an indigenous

17) 기자조선설 혹은 기자동래설은 "중국 고대 은나라 사람 기자가 동으로 와서 조선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학설"을 말한다. 이 설을 허구로 보는 부정론의 입장에서는 기자동래설이, 중국인들이 주변 민족이나 국가의 기원을 기술할 때, 이를 중국 전설상 인물의 후예로 간주하는 중화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제어 '기자동래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8388, 2022.7.9. 검색).

18) Best, Jonathan, "Profile of the Korean Past", in Smith, Judith, ed., *Arts of Korea,*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8, pp. 23-26. 이 책은 여러 한국 학자와 한국 고대사 전공자 Jonathan W. Best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24년 전 작성된 내용이 현재도 여전히 반복 재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 김현숙, 앞의 글, 28면.

20) 일례로 중국 철령박물관은 동북지역 고족(古族) 계통 분류도를 전시하며 중국 학계의 입장을 반영해, 그 실재성을 부정하는 단군조선에 대한 언급은 없는 반면, 그 실체가 고고학적 혹은 사료를 통해 증명되지 않아 한국 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기자조선은 한족으로 분류해 수록하고 있다(김현숙, 앞의 글, 18-19, 29면).

demigod Tan'gun, whose birth more than four thousand years ago is attributed to the union of a sky deity and a bear-woman. The second account credits a Chinese noble and court minister, Jizi (Kija), who is believed to have emigrated to Korea with a large group of followers at the start of the Zhou dynasty (ca. 1100-256 BCE).	demigod Dangun, whose legendary birth in 2333 B.C. is attributed to the union of a sky deity and bear-woman. ②The second account credits a Chinese noble and court minister, Jizi (Korean: Gija), who is believed to have emigrated to Korea with a large group of followers at the beginning of the Zhou Dynasty (1046-256 B.C.).

*밑줄 및 원숫자(①, ②)는 필자 표시.

사전 자료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사 중 하나인 PAM에서도 고조선과 관련해 유사한 서술 방식을 보인다. 아래는 PAM의 전시 브로셔[21] 중 〈평양성도〉(소장품 번호 2003.23)에 관한 기술이다.

> (…) while ①one of the Korean origin myths claims that Gojoseon was established in 2333 BCE by Dangun, offspring of a heavenly prince and a bear-woman, ②another relates that a certain Gija 기자 箕子 (Ch. Jizi),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of the Shang dynasty (ca. 1600-ca. 1046 BCE) in China, founded the state of Gija Joseon in the twelfth century BCE. (밑줄 및 원숫자 필자 표시)

이 병풍과 관련해 PAM은 소장품 소개 페이지에 연결된 유튜브 미디오 자료[22]에서 기자동래설을 확정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6분 11초 쯤에 시작하는 일곱 번째 폭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자정전'이라는 그림 설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Gija's Grid System of Fields • 기자정전 • 箕子井田

---

21) 〈The Shape of the Land: Topographical painting and maps in late Joseon Korea〉, 전시 기간 2018년 7월-2019년 1월, https://portlandartmuseum.org/wp-content/uploads/2018/09/Shape-of-the-Land-brochure.pdf(2022.7.20. 검색).

22) A Visual Journey Through the Walled City of Pyeongyang (평양성 유람), https://www.youtube.com/watch?v=BXG_cxicxr8(2022.7.20. 검색).

기자동래설 부정론에서는 이 '정전터'를 고구려 평양 천도를 전후한 시기의 수도 도시계획의 흔적으로 보며 '기자묘'는 후세에 만든 가공의 것이라고 본다.[23]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PAM 자료에서는 기자동래설에 기반한 기자정전터, 즉 기자가 평양에 설치한 정전이라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일 유물에 대한 NRICH 보고서 설명을 보면 해당 터를 '정전'으로 표현하고는 있으나 '기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앞부분에 '주요 시설이 (…) 정연하게 구획된'이라는 표현으로 평양이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도시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 (…) 제3・4・5폭은 내성으로 수많은 가옥과 주요 시설이 평행사선으로 정연하게 구획된 가운데 빽빽이 자리 잡고 있어 도시의 번화함이 잘 드러난다 (…) 제6폭 하단부터 제8폭까지는 토성으로 이루어진 외성에 정전이 격자형으로 반듯하게 구획되었다.[24] (밑줄 필자 표시)

상기 사례는 특정 유물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이 전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즉 한국 학계에서는 역사시대로서의 기자조선의 존재를 대체로 부정하고 있지만, MET와 PAM 사례는 고조선의 기원을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두 가지 설로 설명하는 기존 시각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미화된 식민주의 행위

그 유래가 근대 제국주의에서 비롯된 서구 박물관은 자신들의 소장품 입수가 불법적(illicit)[25] 경로를 통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입수

---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제어 '기자정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A0%95%EC%A0%84&ridx=5&tot=93(2022.7.20. 검색).

24)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77면.

25) 우리말로는 '불법적'이라 표현하지만, 'UNESCO Convention on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등에서 볼 수 있듯 국제 협약에서는 'illicit'라는 표현을 쓰며 이는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 규범 등에서 벗어난 정당하지 않은 방식을 포괄한다.

정보를 최대한 철저히 기록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BM의 경우는 기증자별로 관련 소장품을 온라인에서 한꺼번에 검색해 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각 유물과 관련된 인물의 정보를 앞서 언급한 용어 DB에 수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략한 '사실'만 '중립적' 입장에서 기술하다 보니 진실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사례를 살피고 그 함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용어 DB의 하위 DB로서 인물 DB를 구축하고 있는 BM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기증자' 오기타 에츠조

아래는 오기타 에츠조(Ogita Etsuzo, 荻田悦造)라는 인물에 대해 BM 인물 DB에 수록된 내용이다.[26]

> Biography
> Secretary of the Imperial Korean Government[27]; Office of the Japanese Commission for the Japan-British Exhibition at Shepherd's Bush, 1910, at which time he donated Korean and Japanese items to the Museum. (밑줄 필자 표시)

1910년 런던에서 개최된 일영박람회 후 BM에 한국 관련 물품을 '기증(donate)'했다고 되어있다. 'donate'의 사전적 정의를 적용하면[28] 에츠조는 공공의 이익, 혹은 선의를 위해, 박람회 기간 중 전시됐던 한국 물품을 박물관

26)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term/BIOG13011(2022.8.20. 검색).
27) 일영박람회 당시 에츠조는 통감부 서기관이었으므로 여기서 'Imperial Korean Government'는 통감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영문 표현만 놓고 보면, 한국 정부, 즉 대한제국 정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에츠조가 적법하게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주요용어 영문표기 표준화 연구' 결과보고서(이명화 외 2012: 475)에서는 통감부를 'Japanese Residency-General in Korea', 조선총독부를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로 번역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28) 메리엄웹스터는 "to make a gift of, especially : to contribute to a public or charitable cause"(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onate), 그리고 옥스퍼드사전은 "give (money or goods) for a good cause, for example to a charity"(https://oxfordlanguageclub.com/page/blog/word-for-the-day.-donate)라고 정의하고 있다(모두 2022.12.31. 검색).

에 기증한 훌륭한 인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일영박람회가 개최된 역사적 배경과 어떤 물품이 어떤 맥락에서 전시되었는지를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29]

에츠조의 '기증품' 중 하나인 〈저고리〉(As1910,1111.2.b)[30]에는 "Jeogori, woman's jacket of Korean costume; originally mounted on model figure (…)"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일영박람회 당시 한국관 입구에는 일본 상점 입구에서 볼 수 있는 노렌(暖簾)이 달려 있었고 문 양 옆으로는 실물 크기 인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입혀 놓았던 의복이다. 근대 서구 박람회에서 과학적 '표본(specimen)'의 일환으로 원주민을 전시하던 "인종 전시" 관행[31]에 따라, 이미 식민지가 된 대만은 원주민을 데려와 인간 전시를 했지만 아직 식민지 편입 전이던 한국은 인형으로 대체했었던 것이다.[32]

한국과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가 모두 일본 통감부에 의해 결정되었던 박람회에서 통감부를 대표하던 에츠조의 역할을, 역사적 맥락은 생략한 채 단순히 '기증자'로 중립적으로만 기술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증자는 명시하되 그 입수 경위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방식은, 간략한 '사실' 기술에 그침으로써 '진실'이 가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서구 박물관의 유물 입수 정보[33]는 언제 누가 기증/유증 혹은 누구에게서 구매했다는 '사실'은 알려준다. 그러나 최근 포스트뮤지엄(post-museum)[34]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

---

29) 노유니아, 「1910년 일영박람회 동양관의 한국 전시 – 일본제국의 대외선전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표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8,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4, 179-210면. 이 글에 따르면 일본은 유럽 열강과 같은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천명하고자 런던에서 일영박람회를 개최했으며 박람회 시작 당시에는 조선이 아직 식민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존 식민지와 묶어 조선을 동양관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열등함'을 보여주기 위해 주로 민속품을 전시했다.

30)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object/A_As1910-1111-2-b(2022.7.15. 검색).

31) 김영나, 「'박람회'라는 전시공간」,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13, 서양미술사학회, 2000, 79면.

32) 노유니아, 앞의 글, 189면.

33) 각 박물관 웹사이트의 소장품 소개 페이지에 provenance, credit line, acquisition name 등의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34)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에 바탕을 둔 포스트뮤지엄은 신박물관학의 '성찰적 전환(reflexive turn)' 하에서 식민주의적 과거를 속죄하고자 한다(박현주, 앞의 글, 2021b, 91면).

(2) '고고학자/발굴자' 모로가 히데오

아래의 BM 인물 DB 기술 사항에 따르면 모로가 히데오(Moroga Hideo, 諸鹿央雄)는 고고학자로 한국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한 인물이다.

> **Details**
> individual; academic/intellectual; Japanese; Male
> **Biography**
> Archaeologist, conducted excavations in Korea.

모로가는 경주에서 대서소를 하다 경주고적보존회를 이끌며 아마추어 고고학자로 활동하다 관학자들의 고적조사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며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 초대 관장에까지 올랐다.[35] 모로가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발굴 성과라 불린 신라 금관총 발굴 과정에서 유물 수거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유명세만큼 이는 "도굴의 기폭제"로 작용했고, 그는 도굴품 취급과 도굴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원을 판결 받기도 했다.[36] 모로가가 관여한 고적조사사업으로 논의를 확장해 보면 그의 '발굴' 작업은 단순한 개인적(명백한 도굴일 경우 개인의 일탈적 행동) 차원을 넘어,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업적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제국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고자 했던 일제의 기획[37]과도 맞물린다. 1916년부터 본격화된 고적조사사업은 한국 역사의 시작점을 고조선이 아닌 한사군으로 설정함으로써 북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타율적이며 외인론적인 역사로 제시하고자 했다.[38] 사업 명칭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님을 의미하는 '사적' 대신 오래되었다 혹은 더 나아가 원시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고적'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39]

---

35) 정인성, 「일제강점기 '경주고적보존회'와 모로가 히데오」, 『대구사학』 95, 대구사학회, 2009, 1-39면.
36) 같은 글, 30-31면.
37) 오영찬, 「일제시기 한국 문화재와 소프트 파워」, 『국외 소재 문화재와 소프트 파워』(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22a, 46-54면.
38)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경인한국학연구총서 69), 경인문화사, 2009, 99-100면.
39) 오영찬,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과 (탈)식민주의」,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모로가의 '발굴'은 '졸속 발굴' 혹은 '도굴'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이 아닌 장물로의 변질과 훼손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음[40]을 고려할 때, 모로가를 단순히 한국(조선)에서 발굴을 수행한 고고학자라고만 기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4. 탈식민주의적 번역을 위한 제언

1) 학술적 근거 자료의 영문 번역과 전파

상기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번역에 있어 탈식민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내용 구성에 있어 우리의 주체적 입장을 담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타국에 우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학계의 "과학적 분석"[41]이 담긴 논리적 자료를 영문화하고 전파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있어 공신력 있는 해외 학술지에 우리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게재해 해외 기관이 이를 스스로 참조하고 그 내용을 채택해 해당 기관의 전시, 사전 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외국 박물관에서 한국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를 참조하고 이를 설명에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42] 이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BM의 〈왕회도 병풍〉(2000,0609.0.1) 사례를 들어 자료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양질의, 특히 학술 자료가 지닐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민족의 조공 행렬 그림[43]이라 할 수 있는 왕회도(王會圖)는 그 유래가 중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작된 왕회도라 해도 그 내용이

활용—발굴자료를 중심으로』(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b, 199-209면. 이 글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朝鮮史蹟調査略報告』라는 보고서 제목 등 '사적'을 모두 '고적'으로 교열했다. 일본에서는 '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데 반해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에 대해서는 문화재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역사가 배제된 용어인 '고적'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40) 정인성, 앞의 글, 33면.

41) 김현숙(앞의 글, 28면)은 단군 신화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학계의 과학적인 분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 비과학적, 비학문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42) 박현주, 앞의 글, 2021b, 119면.

4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72면 참조.

무조건적으로 중국의 조공국으로서의 한국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BM 웹사이트의 해당 소장품 페이지를 보면 ①'설명(Description)'과 ②'큐레이터 논평(Curator's comments)'란에 아래와 같이 상충된 내용이 적혀 있다. 즉, ①에는 한국이 중국에 조공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②에는 중국 등이 한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적 기술은 그 자체로 이론의 여지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① Ten panel screen showing Koreans paying tribute to the Chinese court. Choson Dynasty, 19th century.
② (…) the screen shows Chinese, Central Asians and others presenting gifts to the Korean emperor.

이 두 가지 설명이 등장하게 된 연원을 살펴보면 우선 ①은 동 유물 입수 경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Acquisition notes'를 보면 2000년 3월 23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Sale no. 9392)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크리스티의 설명 자료는 제목부터 'Tribute mission at the Chinese court'라고 되어 있다.[44] 그런데 BM 한국실 확장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한광호 기금(Hahn Kwang-Ho Purchase Fund)[45]으로 유물을 구입하며 왜 굳이 조공국으로서의 한국을 보여주는 그림을 구입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십 년이 지나 출간된 프리위[46]의 논문은 크리스티 도록과는 정반대의 해석, 즉 ②에 수록된 내용처럼, 중국, 중앙아시아 등이 한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이 작품이 중국과의 오랜 조공 관계가 마침내 종식된 대한제국기에, 한국을 국제무대에 새롭고도 강한

44) 크리스티 웹사이트, https://www.christies.com/lot/lot-1742791?ldp_breadcrumb=back&intObjectID=1742791&from=salessummary&lid=1(2022.8.3. 검색).
45) BM 한국실 입구 안내문이 붙은 기둥의 측면을 보면 기금을 기부한 한광호 박사에 대한 헌사가 "**Dr Hahn Kwang-ho CBE (1923-2014)** for his gift to establish a purchase fund for Korean works of art"라고 기술되어 있다(BM 웹사이트 한국실 가상 투어(virtual tou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46) Priewe, Sascha, "Hahn Kwang-ho and the British Museum", *Orientations*, Vol. 41, No. 8, 2010, pp. 59-64.

위치에 천명하고자 제작된 것이라는 박정혜의 분석에 근거한다.[47] 이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BM의 왕회도는 "청나라 복식을 입은 이민족이 공물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 조선이 청의 조공국이라는 현실을 뒤집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48] 크리스티 도록의 기술 내용과는 정반대로 "다분히 중국적인 냄새가 나는 왕회도 병풍"[49]을 '전용'해 현실을 전복시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자료 간 연관 관계

전체적으로 BM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며 웹사이트를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내용을 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인식이 고착화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박물관측이 소장품과 관련해 발간되는 한국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참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 한국 컬렉션 인물/기관 영문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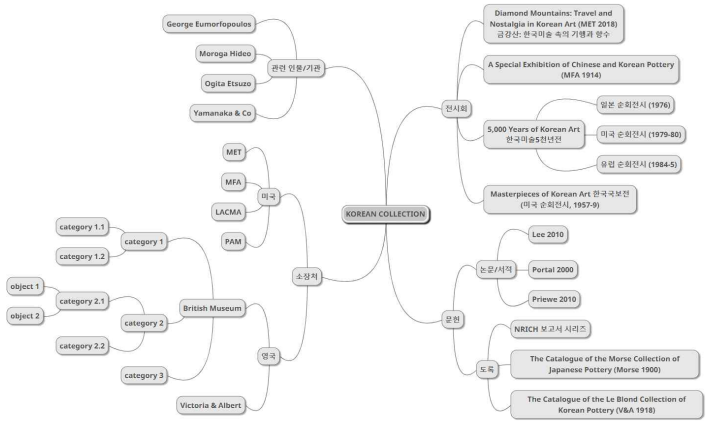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들의 경우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서구 박물관 스스로는 밝히기 "껄끄러운" 진실일 수 있으며 이를

47) 같은 글, 61-63면. 박정혜의 어떤 자료를 참조한 것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왕회도 관련 박정혜(2013)의 다른 논문을 찾아보았다. BM 소장본은 아니나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왕회도 병풍과 관련해 그는 화제 자체가 중국에서 유래했으므로 중국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지만, 천자 뒤의 일월오봉병이나 세의장(細儀仗)을 들고 있는 관원 복식 등에서 한국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박정혜, 「조선후기 〈왕회도〉 병풍의 제작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77, 한국미술사학회, 2013, 105-132면.

48) 국립문화재연구소,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72면.

49) 박정혜, 같은 글, 116면.

밝혀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또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본고에서는 '근대 한국 컬렉션 인물/기관 영문 DB'(이하 '인물 DB') 구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가칭 'Korean Collection 포탈'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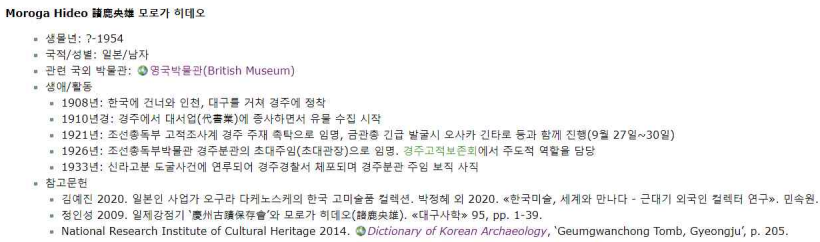
본고에서 제안하는 인물 DB는, 〈그림 2〉[5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외에 소재한 한국 컬렉션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가칭 'Korean Collection' 포탈의 일부(좌측 상단)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 정보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에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관련 자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51] 이러한 포탈이 구축된다면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52] 이 포탈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기약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인물 DB로

50) 동 개념도는 필자가 한국사전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용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연구를 통해 정밀화되어야 한다.

51) 국립문화재연구원 국외문화재DB(홈〉연구자료〉미술〉국외소재한국문화재〉국외문화재DB 검색, https://portal.nrich.go.kr/kor/overseasSearchList.do?menuIdx=840&webyn=Y), 국외소재문화재재단(http://www.overseaschf.or.kr/front/main/main.do?SITE_ID=KOR).

52) 박정혜(2020: 208)는 근대 시기 내한한 초기 선교사의 외국 박물관 기증품을 정리하면 한국 미술품 수집 경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박정혜 외, 『한국미술, 세계와 만나다—근대기 외국인 컬렉터 연구』, 민속원, 2020.

논의를 국한한다. 또한 최종 결과물은 영문으로 서비스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문으로 간략한 견본을 만들어 보았다. 상세한 미시구조는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화되어야 할 것이다.


Moroga Hideo 諸鹿央雄 모로가 히데오

- 생몰년: ?-1954
- 국적/성별: 일본/남자
- 관련 국외 박물관: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 생애/활동
  - 1908년: 한국에 건너와 인천, 대구를 거쳐 경주에 정착
  - 1910년경: 경주에서 대서업(代書業)에 종사하면서 유물 수집 시작
  - 1921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계 경주 주재 촉탁으로 임명, 금관총 긴급 발굴시 오사카 긴타로 등과 함께 진행(9월 27일~30일)
  -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의 초대주임(초대관장)으로 임명. 경주고적보존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 1933년: 신라고분 도굴사건에 연루되어 경주경찰서 체포되며 경주분관 주임 보직 사직
- 참고문헌
  - 김예진 2020.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한국 고미술품 컬렉션. 박정혜 외 2020. «한국미술, 세계와 만나다 - 근대기 외국인 컬렉터 연구». 민속원.
  -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慶州古蹟保存會'와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대구사학» 95, pp. 1-39.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Dictionary of Korean Archaeology*, 'Geumgwanchong Tomb, Gyeongju', p. 205.

〈그림 3〉 근대 인물 사전의 미시구조

'관련 국외 박물관' 항목은 동 인물 DB가 국외 소재 근대 한국 컬렉션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생애/활동' 항목이 본고에서 제안하는 인물 DB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BM 인물 DB의 '생애(Biography)' 항목과 동일하나 우리측 관점을 반영해 내용을 기술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위키실록사전[53]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온톨로지 기반의 용어 간 관계망을 구축하고 특정 유물 관련 인물 표제어(수집가, 기증자 등)의 생애/활동 항목에 수집, 기증 시의 상황/맥락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BM 용어 DB에서 히데오는 "한국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한 고고학자"로 단순 기술되어 있는 반면, 우리측 인물 DB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관련 한국 컬렉션 혹은 유물의, Inglis의 표현을 빌자면, '사회적 생애(social patina)'[54]의 주요 기점이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줄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유물/컬렉션이 원산국인 우리나라에서 현 소장처로 이동하는

53)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B%8C%80%EB%AC%B8.
54) Ames, Michael, *Cannibal Tours and Glass Boxes: The Anthropology of Museums*, UBC Press, 1992, 141면 참조.

과정에서, 특히 불법 반출과 관여되어 있다면 해당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외 박물관 웹사이트를 보면 한국어 자료도 참고문헌으로 올라와 있어 본고에서 제안하는 인물 DB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국외 기관에서도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객관적, 논리적 자료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 목록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 〈그림 3〉에서 '경주고적보존회'의 경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동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하이퍼링크로 상호참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전 명칭은 '인물 DB'지만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있어, 경주고적보존회처럼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기관 혹은 단체의 경우에도 표제어로 수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야마나카상회(山中商會, Yamanaka & Co.) 같은 골동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도 지사를 두고 활발히 활동했으며 실제 국외 박물관 유물 출처란에서 그 이름을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BM 용어 DB에는 야마나카상회가 동양미술상으로 영국 왕립학술원에서 개최된 중국유물전(1935~1936)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유물도 46점을 기증했다고 긍정적 측면만을 기술하고 있다.[55] 그러나 야마나카상회가 조선에 진출한 시기는 불법도굴을 비롯해 조선에서 고분 발굴이 성행했던 시기(1920~1930년대)와 맞물려[56] 불법 반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일례로 보스턴박물관은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구〉(39.591a-f)를 야마나카상회에서 구입했고 이 유물과 관련해 조계종은 반환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박물관은 '합법적' 입수 절차를 거친 사리구는 박물관에 남기고 그 종교적 중요성을 고려해 사리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사리와 사리구를 분리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 및 다수의 한국 박물관 측 조언에 따라 박물관에 그대로 소장하고 있다고 웹사이트에 적고 있다.[57]

---

55)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term/BIOG15784(2022.7.17. 검색).

56) 김예진,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한국 고미술품 컬렉션」, 박정혜 외, 『한국미술, 세계와 만나다—근대기 외국인 컬렉터 연구, 민속원, 2000.

57) https://collections.mfa.org/objects/19127/buddhist-reliquary;jsessionid=796D259598003388C61EEFD73C3FB56F(2022.12.17. 검색). 이 기술 내용을 보면 분리하면 안 되니 박물관

본고에서 제안하는 인물 DB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국영문 사전 편찬사업[58] 등을 통해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중국도상시소러스(Chinese Iconography Thesaurus)[59]처럼 해외 박물관과 협업하는 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CIT는 시소러스, 즉 분류 사전이기는 하나 편찬 의도에 명확히 기술하고 있듯 기존의 "유럽 중심적" 접근에서 탈피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에서는 영미권 3개 박물관의 온라인 사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관련 사항이 어떻게 번역 혹은 표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컬렉션 관련 자료를 양적, 질적으로 확충하고 한글이 등장하는 등 한국의 존재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전 자료에 우리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이 반영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근대 시기 우리 스스로에 의한 직접 번역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 혹은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구에 의한 간접 번역이 이뤄진 경우, 그 과정에서 제국의 시각이 반영되고 후대에도 그러한 이미지가 그대로 적용되며 전승 및 확산이 이뤄진 사례는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다.[60] 식민통치국이 번역자로 기능하며 제국주의적 시선이

에서 그대로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측에서 말한 것처럼 읽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측의 의도는 분리하면 안 되니 사리와 사리구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미국 보스턴미술관 '라마탑형 사리구'」(문화재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8), 일요신문, 2015.7.31.,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36352(2022.8.7. 검색).

58) https://www.aks.ac.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72000 (2022.12.17. 검색).

59) 영국 DCMS(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기금으로 사업에 착수한 이후 홍콩 北山堂基金(Bei Shan Tang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Victoria & Albert)의 중국유물 선임큐레이터 Hongxing Zhang 박사 등 주로 중국계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만 고궁박물관, 영국 V&A, 미국 MET의 중국 컬렉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vam.ac.uk/research/projects/chinese-iconography-thesaurus-cit(2022.7.27. 검색).

60) 박현주(2022)는 국영문으로 함께 발간된 NRICH 보고서가 다른 나라에 의한 간접 번역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 관련 지식 혹은 정보 오류를 어떻게 교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박현주,

투영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이미지 왜곡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한국이 제대로 표상될 수 있도록 번역학에서 말하는 소위 탈식민주의적 혹은 개입적 번역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입이라 함은, 원전에 충실해야 한다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번역가가 개입해 교정자로서의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는 박물관 번역이 단순한 언어 차원의 번역이 아닌 문화번역이라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스터지[61]에 따르면 문화번역 혹은 표상에 있어 출발텍스트(source text)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번역가는 반역자"라는 개념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박물관 번역 맥락에서 번역가의 '책무(task)'는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문화를 표상함에 있어 "원칙에 근거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책임있는 선택"(principled and if possible accountable choice)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칙은 독자적, 내부적으로 수립 가능한 반면, 책임있는[62]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학계 및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된다. 외국 박물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혹은 틀린 이미지로 한국이 표상되고 있다 해도 이를 정정하도록 해당 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그들이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영문으로 된 자료 제공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그 한 예로 본고에서는 외국 박물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문 사전 자료로서의 한국 컬렉션 포탈, 그리고 그 하부 구성 요소로서 한국 컬렉션 관련 근대 인물 사전을 우리의 주체적 시각에서 구축하는 안을 간략하게나마 제안해 보았다. 여기서 '구축'은 기존 국문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사용자층을 외국인/기관까지 포괄하는 만큼 어떤 내용이 어떻게 번역 및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해 내용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 구축에 있어서는 외국 박물관의 한국 컬렉션 관련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 박물관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사업—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과 전복적 번역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23(1), 한국번역학회, 2022, 23-32면 참조.

61) Sturge, 앞의 책, 3면.

62) 포스트뮤지엄 맥락에서 '책임있는' 선택은 '윤리적(ethical)' 선택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기술 및 번역 현황을 분석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역사 문헌과 근거에 기반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 해당 사항을 '교정'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이들 사전에 수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이 사전 자료가 서구에 소장된 한국 컬렉션 관련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관점에서 비추는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클리포드[63]가 말하는 접촉지대(contact zone)로서의 박물관에서 한국 컬렉션은 상호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기여를 한 경우 이를 밝히는 등, 원소유국과 현 소재국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해당 사전은 사장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그 활용성을 제고하며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3) Clifford, James, "Museums as Contact Zones", in James Clifford (ed.)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p. 188-219.

▮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_____,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김영나, 「'박람회'라는 전시공간」,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13, 서양미술사학회, 2000, 75-111면.

김예진,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한국 고미술품 컬렉션」, 박정혜 외, 『한국미술, 세계와 만나다—근대기 외국인 컬렉터 연구, 민속원, 2000.

김현숙,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동북공정식 고구려사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71, 고구려발해학회, 2021, 9-39면.

노유니아, 「1910년 일영박람회 동양관의 한국 전시 - 일본제국의 대외선전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의 표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8,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4, 179-210면.

박정혜, 「조선후기 〈왕회도〉 병풍의 제작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77, 한국미술사학회, 2013, 105-132면.

박정혜 외, 『한국미술, 세계와 만나다 - 근대기 외국인 컬렉터 연구』, 민속원, 2020.

박현주, 「국내 박물관 번역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구 고찰 및 시론적(試論的) 논의」, 『통역과 번역』 23(1), 한국통역번역학회, 2021a, 57-86면.

_____,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변화에 따른 영미권 박물관에서 한국의 번역과 표상」, 『번역학연구』 22(4), 한국번역학회, 2021b, 91-126면.

_____,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 박물관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사업 -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과 전복적 번역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23(1), 한국번역학회, 2022, 9-43면.

오영찬, 「일제시기 한국 문화재와 소프트 파워」, 『국외 소재 문화재와 소프트 파워』(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22a, 46-54면.

_____,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과 (탈)식민주의」,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발굴자료를 중심으로』(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b, 199-209면.

이명화 외, 『근현대사 주요용어 영문표기 표준화 연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2.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경인한국학연구총서 69), 경인문화사, 2009.

정상혁, 「15년만에 바뀐 '박물관' 정의… '다양성' '즐거움'이 추가됐다」, 조선일보, 2022.8.28., https://www.chosun.com/culture-life/art-gallery/2022/08/28/6KSD57KZZRFT5M4AIX3HGLBICI/(2022.12.18. 검색).

정인성, 「일제강점기 '경주고적보존회'와 모로가 히데오」, 『대구사학』 95, 대구사학회, 2009, 1-39면.

Ames, Michael, *Cannibal Tours and Glass Boxes: The Anthropology of Museums*, UBC Press, 1992.

Best, Jonathan, "Profile of the Korean Past", in Smith, Judith, ed., *Arts of Korea*,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8, pp. 23-26.

Clifford, James, "Museums as Contact Zones", in James Clifford (ed.)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p. 188-219.

Priewe, Sascha, "Hahn Kwang-ho and the British Museum", *Orientations,* Vol. 41, No. 8, 2010, pp. 59-64.

Sturge, Kate, *Representing Others: Translation, Ethnography and Museum* (Translation Theories Expolored), Routledge, 2007.

【Abstract】

Translation of Korea at Foreign Museums Examined Through Their Online Dictionary Resources

Park, Hyunju*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 is represented or translated (translation in its broad sense) at foreign museums, particularly in their online dictionary resources such as term DB and chronological dictionary, by analyzing contents related to Korean collections at three museums in the U.K. and U.S.

The analysis has revealed an increased presence of Korea in the online resources and improvement both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However, some descriptions reflect perspectives quite different from Korea's or include conflicting information, partly due to indirect translation by another country in the modern era when Korea was unable to represent itself in the international arena.

As the differences could be problematic when they have negative implications on Korea's image, this paper also explored plausible measures to tackle the issue from the part of Korea. In translating cultures in museums, the translator's task is "to make principled and if possible accountable choices on how to produce the words and images that will enter the global circuit of cultural representations" (Sturge 2007: 3). Hence, in order to help foreign museums to make "accountable choices,"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 in collaboration with foreign museums if possible, should provide an increased number of quality materials in English on Korean collections at museums overseas, and construct a portal that gives comprehensive information, also in English, on those collections. To give a more concrete idea, an online dictionary on individuals/institutes involved in the displacement of Korean items in the modern era has been shown as part of the portal.

Keywords: foreign museums, online dictionary resources, representation/translation of Korea, Korean collection portal, dictionary of individuals/institutes related to modern Korean collection.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3.

* Research fellow, Ewha Research Inst. for Translation Studies, Ewha Womans Univ.